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LL THE THINGS WE NEVER SAID

가제 : 메멘토모리 닷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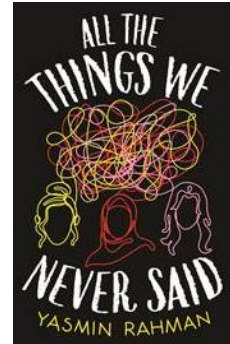
저자 : Yasmin Rahman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9년 8월

분량 : 약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pre-empt로 이탈리아 판권 계약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이 괴롭고 지옥 같아서 당장 생을 끝내고 싶지만 마음만큼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 사람이 만난다. ‘메멘토모리 닷컴’이라는 이 사이트는 구글로 자살, 함께 자살하실 분, 동반자살 같은 단어를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언뜻 보기에는 누가 장난 삼아 만들었는지 정말 뭘 해주긴 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지극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자살을 하고 싶은 이유를 써서 업로드하고 계약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마치 중매 사이트 처럼,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가 신청자 중 ‘함께 죽기에 알맞은’ 짝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면 되는지 세세한 방법과 필요한 물품도 모두 제공한다. 과연 이런 사이트가 정말로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만 봐도 이런 형태의 동반자살이 결코 허무맹랑한 상상이나 장난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원인 모를 불안과 우울한 감정에 지쳐가던 머린과 돌연 장애인이 되어버린 카라, 음흉한 새 아빠와 한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올리비아에게 메멘토모리 닷컴은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은 곳이었다. 세 사람이 만나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기도하고 알라신의 말씀을 읽는 일이 종교를 넘어 일상인 머린은 그렇게 신을 굳게 믿는 것으로 어두운 생각을 많이 몰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생에 힘든 일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엄마는 어떤 일에도 크게 성내거나, 괴로워하거나 평평 울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아빠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남동생은 그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듯 짓궂고 버릇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머린과 한 식구지만 마치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편안하게, 깔깔 웃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기도 하면

서 잘 살았다. 머린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누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아닌데 왜 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숨 쉬기도 괴로운데 아무렇지 않은 가족들을 볼 때면, 그리고 그런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엄습하면 고통을 더 맹렬히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도 않겠지’ ‘내가 없어도 다들 잘만 살 거야’ 매일 저녁 홀로 눈물지며 이 고통을 죽음으로 끝낼 방법을 찾던 머린은 메멘토모리 닷컴을 발견하고, 자살 희망자로 등록한다.

6개월 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차 사고로 허리 아래가 마비된 카라는 휠체어에 묶인 몸보다 큰 고통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엄마가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측은해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카라가 1초도 혼자 겪으면 안 된다고 자책하는 것처럼, 엄마는 어딜 가든 카라를 데리고 다니고 늘 시선이 닿는 곳에 머무르며 설새 없이 말을 걸었다.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오가는 것도 힘든데 엄마 손에 끌려 옷 가게나 슈퍼마켓에 굳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카라는 싫었다. 그래야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엄마의 맹목적인 방식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카라가 원하는 건 한 가지, 가만히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가 용납하지 않는 이상, 죽어서 혼자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카라는 자살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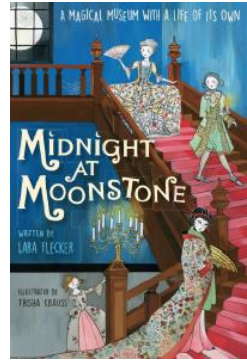
올리비아는 왜 엄마가 새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엄마와 매일 데이트를 하고 장기 투숙객마냥 집에 들어와서 감히 아빠가 앉던 식탁 자리에 딱 하니 앉아 능글능글한 웃음을 흘리는 것도 역겨워 죽을 맛인데 결국 올리비아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특별한 날’이라고 엄마가 예고할 때부터 불안했는데, 샴페인까지 터트리며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올리비아는 그가 처음 집에 드나들 때부터 자신을 결코 묘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몸 구석구석을 살살이 훑는 더러운 시선, 빙긋 웃으며 추파를 던지는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갈수록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교활한 그의 손길을 피하려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엄마에게서 벗어나려면 죽음 밖에 답이 없었다.

메멘토모리 닷컴에서 동반자살할 파트너로 서로를 만난 머린과 카라, 올리비아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돌처럼 응어리진 마음이 그 아픔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관심에 얼마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이들의 결심은 무심코 서명해버린 ‘동반자살 계약서’에 발목이 잡힌다. 계약을 한 이상 중도 포기는 없다는 이상한 계약조건, 공개한 적 없는 신상정보를 모조리 알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의 무서운 울가미에 걸려버린 세 사람은 이제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저자 소개>

야스민 라만(Yasmin Rahman)은 허트포드셔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바스스파 대학교에서 YA 분야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쳤다. Stripes 의 단편 모음집 『A Change is Gonna Come』에 실린 「Fortune Favours the Bold」로 북셀러 YA 도서상을 수상했다.

제목 : MIDNIGHT AT MOONSTONE
가제 : 문스톤의 밤
저자 : Lara Flecker (그림: Trisha Krauss)
출판사: OUP Oxford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10세 이상 / 판타지



*** 밤이면 살아 숨쉬는 의상 박물관의 마네킹들의 이야기 -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일하는 실제 의복 전문가가 쓴 환상적인 스토리와 멋진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동화**

즐겁게 놀 계획만 세워도 모자란 여름방학이 막 시작됐지만 캐서린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일정표’가 쥐어졌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수백 장은 받아보았을 아빠의 꼼꼼하고 상세한 일정표에는 캐서린이 매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지내야 하는지 빼곡히 적혀 있다. 캐서린의 아빠는 ‘헨리 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과학자라 집에 있는 날보다 세계 곳곳에서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거나, 강연을 하는 날이 더 많았다. 이제 곧 열세 살이 되는 캐서린은 아빠가 장기 출장을 떠날 때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워진 일정에 따라 지내야 했다. 젊은 나이에 기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 앨버트 오빠나 역시나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서 이미 정부 고문가로 활동 중인 로잘린 언니가 번갈아 가면서 캐서린을 돌봐주고 아빠의 독촉에 못 이겨 수학이나 과학, 영어 과외도 하고, 두 사람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에는 베이비시터가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식이었다.

캐서린은 나름 아빠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3주 반은 걸릴 남미 출장을 떠나는 아빠와 작별인사를 나눈 뒤 돌아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다. 앨버트 오빠나 로잘린 언니는 유명한 과학자의 자녀들답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소수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거뜬히 졸업했는지 몰라도 캐서린은 아니었다. 공부가 즐겁지도 않았고,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빠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할까? 캐서린이 좋아하는 건 가위와 바늘, 예쁜 무늬가 가득한 종이나 천을 들고 이리저리 오리고 꿰매고 붙여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을 못 차리냐고 혼을 내고, 캐서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엄마의 바느질 상자를 갖다 버리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니나 오빠처럼 캐서린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명문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다는 통보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아빠가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도착했고, 다행히 먼저 통지문을 숨기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사실 캐서린은 애초에 첫 시험에서 탈락했지만 아빠가 그 학교 이사인데다 워낙 출중한 형제들이 거쳐간 덕분에 겨우 손을 써서 재시험 기회를 얻은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학교 측은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과 함께 ‘평범한 고등

학교에 보내시라'는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재시험에도 탈락하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아빠 입에서 몇 번이나 나온 상황에서, 캐서린은 도저히 먼 길 떠나는 아빠에게 그 편지를 보여줄 수가 없었다. 동시에 분명 언니 오빠와는 다른 자신을 억지로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강요가 숨이 막혔다. 참다 못한 캐서린은 결국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로 마음 먹는다. 목적지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곳, 엄마의 바느질 상자 안쪽에 고이 접혀있던 팜플렛에 나온 박물관이었다. 바로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기 전까지 평생을 살았다는 곳, '문스톤 의복 박물관'이다. 캐서린은 큰 배낭에 짐을 싸고 곧장 엄마의 고향집을 찾아 나선다.

런던에서 문스톤 박물관까지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해매고 해매다 겨우 찾아온 그곳은 통명스러운 할아버지가 홀로 지키고 있었다. 캐서린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할아버지였다! 엄마 장례식 날 한 살짜리 아기였던 캐서린을 본 이후 처음 다 큰 손녀와 맞닥뜨린 외할아버지는 썩 집으로 돌아가라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딱 봐도 오랫동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던 기색이 역력한 먼지 쌓인 박물관을 잠깐 들여다본 것만으로 캐서린은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고급스러운 레이스와 화려한 장신구,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드레스와 다채로운 의복들이 가득했다. 아빠는 재봉틀이며 바느질은 다 쓸데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 캐서린은 할아버지에게 제발 며칠만 묵게 해 달라고 조른다.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는 손녀의 말에 놀란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그러라고 하고, 캐서린은 멋진 의상들을 실컷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분명 할아버지 혼자 사는 저택에서 엄마가 쓰던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캐서린은 할아버지의 코고는 소리 너머로 사각사각 발소리를 느끼고 더럭 겁을 먹는다.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가보니, 전시된 마네킹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멋진 드레스를 차려 입은 마네킹들이 홀에 모여 파티를 벌이고, 수다를 떠는 모습을 발견한 캐서린은 또래로 보이는 페텔라라는 이름의 마네킹을 통해 박물관의 마법 같은 비밀을 전해 듣는다. 하지만 겨우 할아버지와 조금씩 친해지고 마네킹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에 익숙해지려 할 때쯤, 캐서린은 할아버지가 힘들게 지키려는 이 박물관이 땅 주인의 요구로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앞장서서 그 비극을 막기로 결심한다. 뒤늦게 캐서린이 가출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 나선 언니, 오빠에게도 당당히 도움을 요청하고 겁에 질린 마네킹들에게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해주면서 박물관 살리기에 나선 캐서린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섬세한 일러스트가 읽는 재미를 더하는, 현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아동 소설이다.

<저자 소개>

라라 플레커(Lara Flecker)는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15년째 패션, 드레스 전시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A Practical Guide to Costume Mounting』가 있으며 『The Reluctant Goddaughter』라는 제목의 원고로 2017년 치킨하우스 출판사 도서 상 결승에 올랐다.

트리샤 크라우스(Trisha Krauss)는 런던에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로 로라 차일드의 어린이 그림책 『Maude, the Not-So-Noticeable Shrimpton』을 포함한 여러 아동 도서에 그림을 그렸다.